

## ‘현장’과 ‘문헌’ 두루 섭렵한 산악 에세이 先行의 자취 더듬으며 옛사람들과 교감

— 「한국명산기」 펴낸 김장호교수



어디를 둘러봐도  
위압감을 주지 않는  
푸근한 산이 눈앞에  
놓이는 이 나라  
사람들에게 산은, 몸의  
일부라도 같다. 바로 그 雄山, 鎮山, 壯山,  
野山들의 농입새와 앓음새와 품새를  
소개하고, 산세의 수려함과 역사유적 등을  
밝힌 고급한 산에세이 「한국명산기」  
(평화출판사)가 산사람 김장호씨(동국대  
국문과교수, 66)의 10여년에 걸친 노력 끝에  
출판됐다.

전문월간지 「山」에 발표했던 글 등을 모아  
책을 엮은 김장호씨는, “先行의 자취를  
더듬으며 선인들과의 교감을 체험하는 게”  
자신의 등산재미임을 강조하며,  
“산악에세이라기 보다는 산의 역사를 캐는  
기행문에 가깝다”고 자신의 책을 자평한다.  
산꾼들을 위해 안간힘을 다해 쓴 이 책은  
애당초에는 ‘100名山’으로 기획했다가  
“통일되고 난 뒤 북한의 산도 감안하여” 우선  
61개의 산을 담은 것으로 변경한 것인데, 그의  
말처럼 이 책은 등산가이드와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꾸며져 있다.

그는 남다르게 등산 전에 할 일이 많다.  
장비를 챙겨 짐을 꾸리는 것이 아니라 가려  
하는 산에 대한 조사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다. 이미 그 산을 다녀온 사람들의  
등산기나 산의 내력과 관련된 역사문헌,  
그리고 민속자료 등을 일일이 찾아 읽고  
기록하는 게 그의 산행 전 작업이다. 이 책은  
그런 과정의 결과를 담고 있다.

밀양 천황산에 가야제국의 퇴화산성이  
있었다고 전하는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의  
고문헌을 찾고, 장군봉으로 불리는 백두산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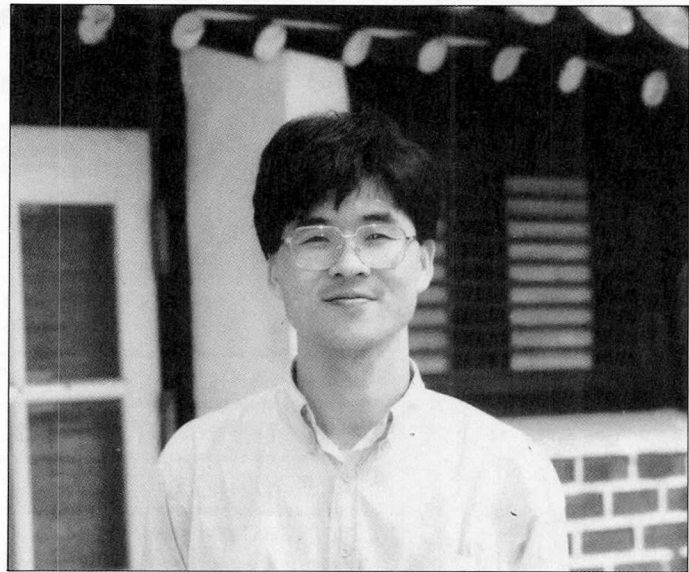
병사봉이란 이름이 하늘을 의미하는 우리의  
옛말 ‘달궁’이 장군으로, 다시 병사로  
변했음을 추적하는 산이름에 대한 고찰이 이  
책의 내용을 이룬다. 뿐만 아니라 수록된  
산사진 역시 그의 세심한 손길이 간 것이라  
더욱 뜻깊을 수밖에 없다.

역시 시인의 눈매와 글솜씨란 생각이  
저절로 드는 공들인 서문으로 시작해  
한민족의 영산인 백두산을 필두로 강원,  
경기, 충청 등 도별로 명산을 가려, 한라의  
허연 봉우리에서 발길을 멈추는 이 책은,  
「택리지」 등 고전 지리지를 훑어 모은 자료가  
돋보이는, ‘등산가’가 아닌 ‘遊山家’인  
김장호교수의 「山學書」로 볼 수 있다.

이 책 외에도 산행시집 「북한산 벼랑」을 낸  
바 있고, 조만간 또 한편의 산행시집을 출판할  
예정인 그는 “산은 높이 오르는 게 목적이  
아니듯이, 많은 산을 섭렵하는 것도 전부가  
아니다”라면서, “국도를 직접 밟으면서  
조상들의 내력과 정신을 느끼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같은 산을  
몇번이고 오른다. 산꾼인 그가 “단풍이  
좋다는 유명한 내장산을 얼마전야야 다녀왔  
던 이유도 그래서이다.

“한때 산의 높이에 매달려” 에베레스트  
훈련대장을 맡아 고고상승 등과도 훈련을  
했던 그는 외국의 산과 비교해 우리 산은 더할  
수 없는 ‘상쾌함’을 지녔음을 강조한다.  
김장호교수는 그 상쾌함 때문인지 요새도  
“처음대하게 될 산에 오르기 전에는 가슴이  
설렌다”고 한다.

— 최태원 기자



## 박물학적 지성이 내뿜는 현란한 사유체계 신이 죽어버린 시대의 ‘세속신’ 기원 밝혀

— 움베르토 에코 에세이집 번역한 조형준씨



일반독자들에게는  
「장미의 이름」과  
「푸코의 추」와 같은  
흥미진진한  
추리소설작가로 널리

알려져 있는 움베르토 에코의 에세이집이  
최근 번역돼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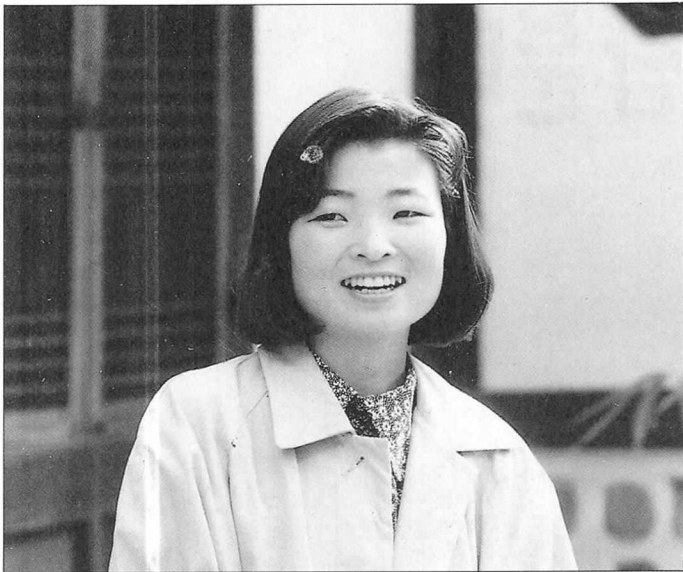
“뛰어난 기호학자로, 기호학 이론으로  
현대세계의 제현상들을 분석한 문화비평가로  
더 높이 평가되어 마땅할 이 무불통지한  
학자에 대한 일반의 ‘편식’에 균형을 잡아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에코는 에세이집도  
여러권 내놓고 있는데, 이 책은 이탈리아  
외부의 독자들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글들을 골라 두 권으로 엮은 독일어판을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국내독자들에게도  
별부담없이 그의 소설만큼이나 흥미진진하게  
읽힐 수 있을 겁니다.” 국내에도 역시  
독일어판과 마찬가지로 「포스트모던인가  
새로운 중세인가」(새물결) 「철학의 위안」 등  
두권으로 번역돼 나온 이 에세이집의 역자  
조형준(30, 경실련 국제부 간사)씨는 “이  
에세이들을 가리켜 에코의 현란한 지성이  
맘껏 광휘를 발하고 있는 생생한 보고서”라고  
요약한다.

여기에서 에코는 타락한 세상에 대한  
도덕적 환타이나 냉소를 지식인의 전유물로  
여기거나, 새로운 문화현상이라면 모두  
자본주의의 은밀한 손길이 미치는 것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좌파·우파 ‘묵시론자들’을  
모두 비판의 범정에 올려놓고 맹렬하게  
공격한다. 가령, ‘세속세계의 신들’(4부)  
에서 에코는 신이 죽어버린 시대에 신을  
대신하고 있는 여러현상들을 검토하면서,  
또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이러한

신들을 다시 ‘낯설게 함’으로써 현대 신들의  
세속적 기원을 밝혀낸다. 에코는 인민사원과  
같은 종말론이나, 동양의 신비주의나 무속,  
붉은 여단과 같은 테러리즘 등을 현대인의  
정신적·심리적 빈곤을 대신하는 ‘종교’이자  
‘인민의 아편’이라 부른다. 즉, 인민사원의  
자살은 전대미문의 사건이 아니라 지상의  
천국이라 하지만 물질적 풍요가 정신적  
안락까지 보장할 리 없는 인공의 천국  
캘리포니아와 같은 곳에서는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정상적인 사건임을 유럽의 역사를  
예로들어 논증해보인다.

이외에도 1부 ‘현대: 새로운 중세로  
나아가는 길 위에서’는 포스트모더니즘의  
거대한 물결이 밀어닥치고 있는 현대사회의  
미래를 중세사회를 주도했던 문화적·심리적  
배경과 비교하고 있고, 2부 ‘극사실주의  
제국으로의 여행’에서는 현대인의 조작당한  
심리와 허위의식에 대하여, 3부 ‘세상읽기’  
편에서는 영화와 유행가, 베스트셀러와  
전람회 카달로그 등과 같은 범상하게  
보아넘기기 쉬운 텍스트의 이면에 가려져  
있는 내적논리를 쫓아내고 낱줄을 풀어내듯  
섬세하게 풀어낸다.

“소문으로만 들던 에코의 전방위적이고  
광대무변한 호기심 때문에 번역하기가 여간  
까다롭지 않았다”고 말하는 조씨는 우리네  
식자들이 신앙처럼 받드는 유럽사회  
좌파지식인들도 그와의 논쟁 앞에서는  
어이없이 무너지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세상보는 눈을 기르는 데는 에코만한  
이른가도 없다”고 상찬한다. 그래서  
「글쓰기의 유혹」 「대중문화연구」로 이어지는  
‘에코의 현대문화 시리즈’를 계속 번역해낼  
것이라고 다짐한다. — 정혜옥 기자



## 대학 떠난 '춘색시'가 부르는 대학연가 틈틈이 써 두었던 생활글 한권에 묶어

—「머저리 연가」 펴낸 이서하씨

이 책 그 사람

「머저리 연가」(살림터)를 지은 이서하씨는 이제 갓 스물네살 된 신출내기 작가다. 재학시절 전남대

학생운동을 다룬 2인 연작소설집 「오월대」를 펴내 대학가에서 화제를 불러일으킨 주인공이기도 하고 사범대를 막 졸업하고 교원임용고시에 합격하여 국어교사 발령을 기다리던 중, 최근 「전교조교사 복직」 뉴스에 실업생활을 한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도 전교조교사들은 복직되어야 한다”는 건강함을 잃지 않고 있는 예비교사이기도 하다.

대학을 떠난지 오래인 사람들중 문학에 대한 식견이 있다고 자부를 하더라도 우선 「머저리 연가」를 대하면 이 글이 어느 장르에 들어갈 것인지에 자못 궁급함을 갖게 된다. 이 점은 물론 「머저리 연가」 특유의 장점이기도 하다. 이서하씨는 “지난 4년간의 대학생활중에 틈틈이 써두었던 내 생활의 모습”이라고 단적으로 글의 성격을 말하는데 좀더 쉽게 말을 옮기자면 ‘생활글’이라는 것이 될 것이다. 이를 시인 김형수씨는 책의 해설인 ‘음악이 선율처럼 흐르는 산문’에서 “예술산문”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서하씨는 “그 정도까지 생각한다는 것은 과찬”이라면서 얼굴이 불그레 변한다.

「머저리 연가」는 모두 네 마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알고보면 모두가 구면’이라는 소제목을 달고 있는 첫번째 마당에서는 새로운 공동체 형성을 도모해가는 90년대형 자아를 통해 주변 사람들 개개인의 삶을 담았다.

두번째 마당 ‘머저리 연가’에서는 연애, 우정, 생활방식 등에 대한 몇가지 기억들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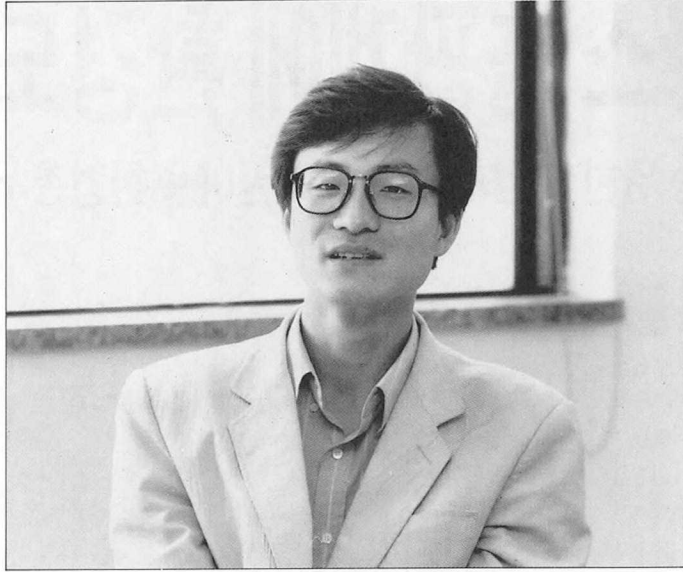
통해 작가가 배우고 느꼈던 점들을 솔직히 털어놓았다. 세번째 마당 ‘날씨가 따뜻하니까 식민지 아닌 것 같죠’에서는 학생운동을 했던 경험 속에서 동료들과 나라사랑의 삶에 대한 끈끈한 애정을 가지게 된 사연들을 도란도란 말하고, 마지막 ‘이 여자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방법’에 담긴 글은 가족들의 이모저모 생활을 중심으로 요즘의 세대를 그려본 것들이다.

이서하씨는 전편에 흐르는 이야기 중에서도 ‘알고보면 모두가 구면’이라는 짧은 글이 전체적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이었다고 한다. 노원역 기사아저씨를 며칠 사이 몇차례나 만난 사연과 목욕탕에서 자신의 등을 밀어주며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나누던 어떤 아주머니와의 인연 등을 통해 이서하씨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람들이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서로 눈치보지 말고,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한 번을 보든 두 번을 보든 먼저 말을 건네고, 먼저 아는 체하고, 사실 알고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아는 사이’가 되고 있는가. 아는 사이라면 화를 내지 않아도 될 일인데...”

이서하씨의 이와같은 작은 소망은 글이 복잡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다는 미덕에서도 발휘되고 있다. 단지 자신만이 글을 쓰면 그만이라는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알게 모르게 알게 된 사람들’이나 ‘할 얘기가 있으면 말하지 않고서는 못배기면서도 선뜻 글로 쓰지는 못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부담감 없이 다가가 “글은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라고 말하는 듯하다. 전남 보성에서 자란 춘색시 이서하의 글은 그래서 더욱 따뜻하지 모른다.

— 이성수 기자



## 궁핍의 과거속에서 길어낸 추억의 언어 지식인 소설의 새로운 전형 창출해내

—「열린 사회와 그 적들」 펴낸 김소진씨

이 책 그 사람

소위 ‘6·3세대(63년생)’ 작가인 김소진씨는 그의 첫 단편소설집 「열린 사회와 그 적들」(솔출판사 刊)에서 열린

사회에서 가장 큰 적이라고 칼 포퍼가 규정했던 ‘헛것’에 대한 문제를 문제삼는다.

그것은 지식인소설의 계보에 속하는 작품들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주제이지만, 이 작품집은 “기층민중어에 기반을 둔 속담사전적 표현”과 “맨날 싸우고 욕하고 좀도둑질하고 멍거리기도 하는 밑바닥 인생”들의 절편한 삶을 통해 문제를 제기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문학평론가 김윤식씨는 권말의 작품론 제목을 “새로운 지식인 소설의 한 유형”이라고 붙여놓는다. 젊은 소설가의 첫 작품집에 한 형식의 본보기라 할 만한 ‘유형’의 딱지를 붙임으로서 작가에게 앞으로의 탐구과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애정을 표하고 있는 형국이다.

“「취잡기」에서는 아버지를 기층민중의 자리에 앉힘으로써, 사변적 면모를 깡그리 벗겨내었는데, 그 때문에 이 작품은 한층 심화된 이데올로기 소설의 면모를 띠는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이데올로기를 인간의 알 수 없음, 곧 ‘기거이 바로 사람이야’의 자리, 인간의 원본적인 곳으로 파악해놓은 것처럼 보이는 까닭이다.”

김소진씨가 아직껏 ‘헛것’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기거이 바로 사람이야”이기 때문이다. “맹탕 헛것”임을 알면서도 그래도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리운 동방」에 의하면, 인간의 품위와 위엄을 지켜줄 마지막 보루는 “자존심” “허영” “일종의 환상”이기

때문이다. “혼의 질병”인 “헛것 콤플렉스”를 육체적으로 앓는 모습은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다울 터인데, 작가는 “궁핍과 결핍의 과거 속에서 길어낸 추억과 會悟의 소설언어”로 그려냄으로써 처연한 아름다움을 획득한다. 그 처연함의 빛깔은 ‘요강 속의 피골레’가 빛어낸 색조와 닮아 있다. 그의 어머니는 속이 虛해 자주 하혈을 했던 것이다.

“제 소설의 팔 할은 어머니께서 키운 겁니다. 그런 삶의 편린들은 헛것에의 매혹에 승복하기 힘들게 했습니다. 대학시절에도 늘 주변인일 따름이었지요. 행동하는 삶으로써 감당하지 못했으므로 글쓰기의 삶으로써 빛났음을 하게 된 것은 아닐지요.”

그러한 부채의식은 바야흐로 “不敗의 제도”가 돼버린 자본체에 모두가 투항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됐다고 한다. “좋은 세상을 고의적으로 믿는다”는 것이다. 그는 「그리운 동방」에서 話者인 ‘나’의 입을 빌어 “그랬을 때, 즉 좋은 세상은 오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충분히 나쁘다 하는 비극적 상황에서 우리들 삶을 버티게 하는 건 뭐지?”라고 묻는다. 화자의 아내는 “자존심”이라고 대답하는 것이다. 그 자존심을 김윤식교수는 “시인의 목소리”라고 명명한다. 작가는 그의 ‘自序’에서 소설은 중간이란 없으며 “사랑이 아니면 미움”이라고 공포함으로써, 처자를 버릴 만큼 강렬한 헛것에 들려 살다 간 아버지의 모습을 빼닮고 있음을 내비친다.

강원도 철원에서 태어나 5세 이후 현재까지 미아리 산동네에 살고 있는 김소진씨는 오는 6월 6일 소설가 함정임씨와 결혼식을 올린다.

— 김중식 기자